

## 오피니언

## 다산포럼

김정남



지난 1991년에 태계한 후석(後石) 천관우 선생 추모문집, '우리 시대의 언론사관, 거인 천관우' 출판 기념회가 얼마 전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그와 시대를 함께했던 언론계의 후배, 사회계의 후학, 민주화 운동의 동지 등 62명이 그를 추억하고 가리는 글을 썼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추모했다.

천관우 선생 그를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사이에 두고 그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고, 개인적인 그와의 사연도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피 위에 집권한 전두환의 취임당에 임석하고, 그 정부 하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국정자문위원을 그가 맡으면서 민주화 투쟁 진영은 물론 어제까지 그를 모시고 따르던 동아·조선투위의 기자들마다 밭길을 끊었다. 그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부음을 듣고 빈소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학원으로 보면 만인의 존경을 받던 그가 어찌하여 만년의 그 한 때를 의연하게 버텨주지 못했나 그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누가 뛰어도 그는 당

대 제일의 지사였고, 언론인이었고, 군계일학의 사학자였다. 그리고 이 나라 재야 민주화 투쟁의 남상이라 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끈 투사였다.

그랬던 그가 1980년 3월, 저식인 134인 선언에 참여한 것을 끝으로, 민주화 투쟁

## 후석(後石) 천관우 선생을 회고하며

과 결별했다. 이는 그를 위해서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 이후 그를 향해 쏟아진 비판과 의도적인 외면을 그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해야 했고,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기 전에 그가 손수 작성한 유서에서 자신의 묘지석에 다만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던 천관우, 여기 잠들다”라고만 쓰게 한 것도 그 처연한 심사를 읽게 한다.

그가 1949년 7월에 대학의 학부졸업 논문으로 쓴 ‘반계 유형원 연구-실학 발생에

서 본 이조사회의 일단면’은 그 자체로 독보적이며, 실학연구의 단초를 연 것으로 역사학계의 전설로 남아있다.

그런 그가 학계를 떠나 임시수도 부산에서 언론계에 몸담기 시작한 것은 우선은 다급한 생계 때문이었지만, 잠지연·박은식·최남선·신체호·안재홍·정인보와 같은 언론인이면서 역사학의 선각자들을 사표로 삼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 과연 그는 지사풍 언론인의 맥과 전통을 이은 마지막 세대의 언론인이었다.

그는 “신문은 오늘의 역사요. 역사는 어제의 신문”이라면서 언론은 곧 사관(史

일어섰다. 이 몇 해 만의 통쾌인”하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 몇 달 뒤인 1975년 3월 새벽, 동아일보에서 출판당한 기자들이 기협회 관 복도에서 “동아의 정통성은 폭도를 고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언론을 사수하는 우리에게 있다”면서 ‘동아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결성했을 때, 그는 이를 해직기자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었다.

1971년 4월 19일, 그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결성, 김재준·이병린과 함께 3인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되었고, 그것을 끌까지 카고하고 이끈 것도 그였다. 유신정변 이후에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곧 그였고, 그가 곧 민주수호국민협의회였다. 스스로 원지를 긋어 성명을 발표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있어 민주화 투쟁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천도(天道)를 아는 역사학자였고, 직시(直時)의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당대의 언론인이었으며, 폭압의 시대에 민주화의 길을 개척해 온 선각자였다. 그가 한마디 변명도 없이 청빙으로 일관한 것은 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만년의 행지(行止)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표로 되지 못한 것은 뭇내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인〉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국경을 초월한 열정을 보다

들의 운전 솜씨에 감탄하였다.

오전 11시경, 중간 지역 보건소에 도착하였다. 간단한 치료와 산파 역할을 하는 지원 인력이 두 사람 있었다. 미숙아를 위한 인큐 베이터는 나무상자를 두 칸으로 나누어 아래 칸에 알집구를 캐命运으로 위 칸의 아기를 따뜻하게 하는 기발한 발상의 나무상자였다. 산모는 출산 후 하루를 보건소에 머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산골마을에서 카트만두는 고사하고 지역 보건소까지 오는 혼한 길, 출산 후 다음날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여건을 실감하였다.

몇 시간을 더 가서 도착한 비교적 낮은 지대인 마관푸르에는 약 40만 명이 산다고 했다. 전통의상을 입은 백여 명의 여성대표들이 우리를 환영하였다. 이들이 의료보조자 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 자선을 일으키며 달려갔다. 산모통이 돌기 전에 경직을 올려서 충돌을 피하고 오고 가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끼고 비켜간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기사

며 잘 운영되고 있었다.

네팔인들은 아침 식사 대신 차를 곁들인 간식으로 해결하고 하루에 2끼, 점심과 저녁을 많이 먹는다. 우리는 아침은 각자 해결하고 출발했고 점심으로 네팔 음식인 달빛과 닭튀김 및 조각, 마파우르에서 대접받은 차가 그날 먹은 음식의 전부였다. 계획보다 4시간이 걸렸지만 11시, 저녁도 못 먹고 그 힘든 산길을 하루 종일 달려 카트만두에 돌아온 건 신기하게 아무도 불평하거나 짜증 내는 사람이 없었다. 도대체 이런 너그러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다음날부터는 회의의 연속으로 기금 모금, 교수 확충, 연구원 강화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 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기금 모금 회의에서는 대학의 비전에 맞는 축총 가능한 9개의 기관 명단,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기부 예상 지수, 기부자들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등 70여 쪽의 제안서 초고가 나왔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회사에 주어 수개월이 걸린다 해도 이처럼

훌륭한 제안서가 만들어질까의 심스러울 정도였다. 다른 두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흡인력을 가지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토론장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태빈 교수는 ‘파탄의 대는 전 세계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하여 이가타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스스로 찾아가서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 여러 사람 중의 하나였다.

나는 문득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났다. “미국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참석자들이 보여주는 그 자발적 열정은 최빈국 네팔의 한 신설 대학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이 대학을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한 모델’로 보는 그 글로벌 마인드와 긍정적 연합이 이유였음을 깨달았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탄의대 객원교수〉

우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더욱이 상류에 땅이 건설되면서 유량고갈 및 수질악화로 1990년 대 후반까지 7개의 먹는 물 취수장이 모두 폐쇄되었다. 아울러, 1970년대 중반까지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내륙수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1977년 10월 영산포에서 마지막 배가 떠난 뒤 하구연 공사로 주운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다.

남도의 젖풀이라 불려 왔던 영산강도 자연의 품을 떠나 보낸 지 오래됐다. 자연이 떠난 영산강은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고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작은 생물종의 일부분도 이제는 보기 힘들 정도다.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은 영산강에 대한 동경의 그림도 기억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엄마와 누나에게 강변 살자”며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산강을 터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시설

## 내년 경제정책 서민·지방 보호 우선돼야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을 최근 전망치인 4.5%에서 3.7%로 크게 낮춰 잡았다.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유지했던 전례에 비춰볼때 너무 뜻밖이어서 한파가 느껴질 정도다.

정부의 성장을 전망치는 목표치이기도 하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4%)에 놓친다는 얘기여서 불황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로 정하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 급격히 쇠어가는 경기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지방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의 지름길은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기 때문에 그간 서민경제가 좋아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막아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다.

## 중국 ‘폭력어선’에 당하기만 하는 우리 해경

2명 사망에, 28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불법으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지 못하고 있으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 어선의 나포 및 압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매뉴얼’을 수립, 교육하고 있는 게 고작이다.

현재의 대응으로는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외교 협상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 준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로는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중국 정부도 한국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는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다.

## 無等鼓

## ‘천망회회 소이불설’

지만은 않은 듯 싶다.

이 의원이 불출마 회견장에서 ‘천망회회 소이불설’을 거론한 것은 주변의 잘못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인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좌관의 허물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경고로 여겨진다.

이 의원이 ‘하늘의 그물’을 언급했지만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로는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제는 훨씬 출중한 그물이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바로 ‘사이버 그물’까지 출현한 것이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스마트폰·트위터 등 비리에 대한 풍자문이 돌면서 저인망식으로 바닥을 훔쳤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갖춰졌으니 빠져나갈 구멍일랑 아래 포기하는 게 낫다.

엉성한 하늘의 그물도 잘못이 있다면 걸려들 판에 SNS그물까지 펼쳐진 요즘, 화를 면하려면 비리 근처에 얼씬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박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하늘의 그물



##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541 《대표 FAX 222-4918》 2200-561 《F A X 222-8005》 2200-561 《F A X 222-9600》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600》 2200-697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제록팀 2200-697 《F A X 227-9500》 2200-536 《F A X 227-9335》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2200-571 《F A X 227-9500》 2200-556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2200-685 《F A X 02-773-9335》 2200-556 《F A X 02-773-9335》

기획사 2200-4267 전시팀 2200-685 《F A X 02-773-9335》 2200-556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고



최형옥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젊어버렸던 동요 한자락을 따라 부르며 어린 시절 황홀 강 상류에 있는 냇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듣고, 보고, 만지면서 자리았던 기억이 생겼다.

엄마와 누나에게 강 주위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의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갈구한 것이다.

이렇듯 과거의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으며, 우리 조상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또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곳이고

## 영산강, 다시 삶의 터전이 되려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했던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반짝이는 금모래와 강물은 복잡한 삶 속에서 마음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평온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호남의 젖풀인 영산강도 과거에는 물고기로 잡고 떡도 감을 수 있었던 환경이자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터전이었다. 영산강은 지역에 따라 남포강, 목포강, 금강, 사호강, 곡강으로 불리되었으나, 고려말 나주시 영강동에 광식을 세금(세곡)으로 보관하고 운송을 위해 설치된 영산장은 암을 흐른다 하여 조선시대부터 영산강으로 불렸다.

영산강의 발원지는 추월산 자락인 가마골 용소이다. 상류부는 산지하천으로 비교적 자연하천의 모습을 띠고 있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광주, 나주시, 목포시 등의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지를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 농한기 농민 노리는 다단계 불법행위에 속지 맙시다